

PetroChina, M&A에 600억달러 투입

앞으로 10년간 해외기업 인수 추진 ... 글로벌 통합 에너지기업 목표

PetroChina가 앞으로 10년간 해외기업 M&A에 600억달러를 투입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Bloomberg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기업 PetroChina는 앞으로 10년간 해외기업 인수에 최소 60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민(蔣潔敏) PetroChina 사장은 “10년 전에는 국영 석유기업에 불과했지만 지금 세계적인 통합 에너지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PetroChina는 2009년 오스트레일리아 및 캐나다, 싱가포르, 중앙아시아 등 해외시장에서 정유공장 등을 인수하는 데 총 70억달러를 투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9>